



2020년 1월 19일(제965호) 연중 제2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하느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도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다.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그분을 차가운 말구유 위에 눕혔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실 때도 세상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증언이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요한 1,34)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는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바로 그 시작이었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많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재는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증언이 필요했고, 증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 “증언의 삶”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세상 곳곳에 전해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은 퍼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지금도 필요하고, 지금도 있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피조물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세례자 요한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았다고. 내가 증언한다고. 세상 속에서 내 삶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 여러분이 증언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미 계신 그분은 세상 속에서 참되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증언이 있어야 확증됩니다. 여러분의 증언의 삶이 있어야 그리스도는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여러분만을 믿고 계십니다.



성주형(리지토) 신부  
소상(17시단) 상당 주임

**제 1 특 시** 이사 49,3.5-6

**회 답 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 2 특 시** 1코린 1,1-3

**복음 본'호송**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 음** 요한 1,29-34

**영 성 제 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교구 청년 대회 인니



◆ 교구에서 청년들과 군 장병들을 위한 제주도 성지순례를 마련했습니다. 특유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순례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일정 : 2020년 2월 17일(월) ~ 21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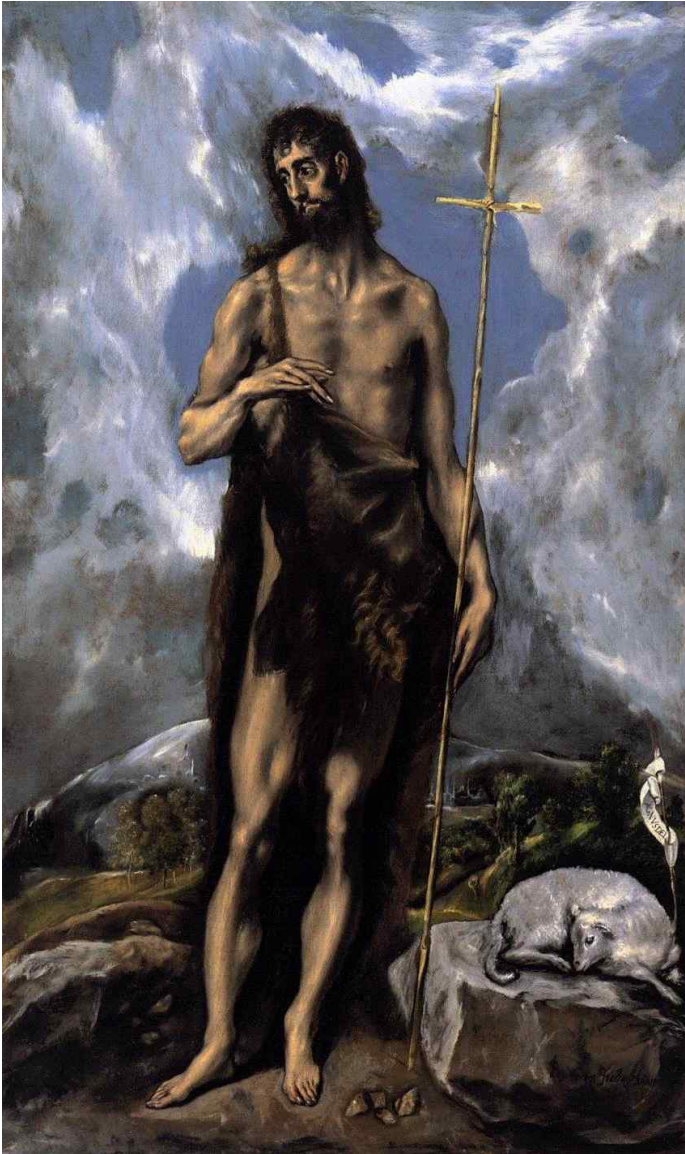
17일(월)	18일(화)	19일(수)	20일(목)	21일(금)
예수님의 부재	다가오시는 예수님	방향을 제시하시는 예수님	사랑을 찾아서	결단, 그리고 파견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한 21,4)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요한 21,5)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요한 21,6)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15)	“나를 따르라” (요한 21,19)

- 참가비 : 15만원(항공료 불포함)

- 문의 : 군중교구 교육국(02-749-1921, 내선 4번)  
카카오톡 : 천주교 군중교구청 교육국(ID: miledu)

상화이야기

세례자 요한



이 그림은 엘 그레코가 왕의 총애를 잃고 왕권과 미술계의 변방에서 지낼 때 그렸다고 알려진 작품으로, 사막에서 양털 옷을 두르고 벌레 등으로 근근히 연명했다고 알려진 세례자 요한에 작가의 현재 모습이 많이 투영되었다고도 전해지는 그림이다.

엘 그레코 특유의 길게 늘어난 듯한 인물 표현은 그대로이나, 오랜 고행과 묵상으로 날카로워진 눈빛과 마른 몸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증언했듯이, 엘 그레코도 그만의 독특하고 앞선 방식으로 미술계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주보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겠으나 그림 배경의 산자락에 자세히 보면, 당시 스페인 필리페 2세 왕궁이 보인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요한 1,34)

엘 그레코, 1600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111x66cm  
샌프란시스코 미술관, 미국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주일: 진미대 장현수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1월 19일(주일) 11:00

- 회의

- 때·곳: 1월 21일(화), 교구청 회의실  
국장회의 11:00, 사제평의회 14:00, 참사회의 16:00

◆ 2020년 제62차 국제군인 성지순례대회

- 일시: 2020년 5월 7일(목)~19일(화)
- 장소: 폴란드, 체코, 프랑스
- 대상: 군중신부, 군인신자, 예비역, 군가족
- 참가비: 370만원(총 410만원, 교구지원 40만원)
- 신청마감: 2020년 2월 3일(월)
- 자세한 사항은 교구 공문(천군교 1920 - 31) 참조
- 문의: 군중교구 사무국(02-749-1921, 내선 2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지후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1,19)